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 로덴나무 그늘교회

---

날짜 : 2023.01.08

시간 : 오전 11시

장소 : 친구사이 사정전



# 예 배 순 서

예배의부름

사 회 자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양

아침 해가 돋을 때

다 같 이

공 동 기 도

사 회 자

성 경 봉 독

마 3:13~17

다 같 이

찬 양

다비드 찬양대

설 교

내게 세례를 주소서

유연희 목사

봉 헌

다 같 이

축 도

유연희 목사

소 식

사 회 자

파 송

일어서서

\*

예배시작 전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의부름

##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 신앙고백

## 다 같이

---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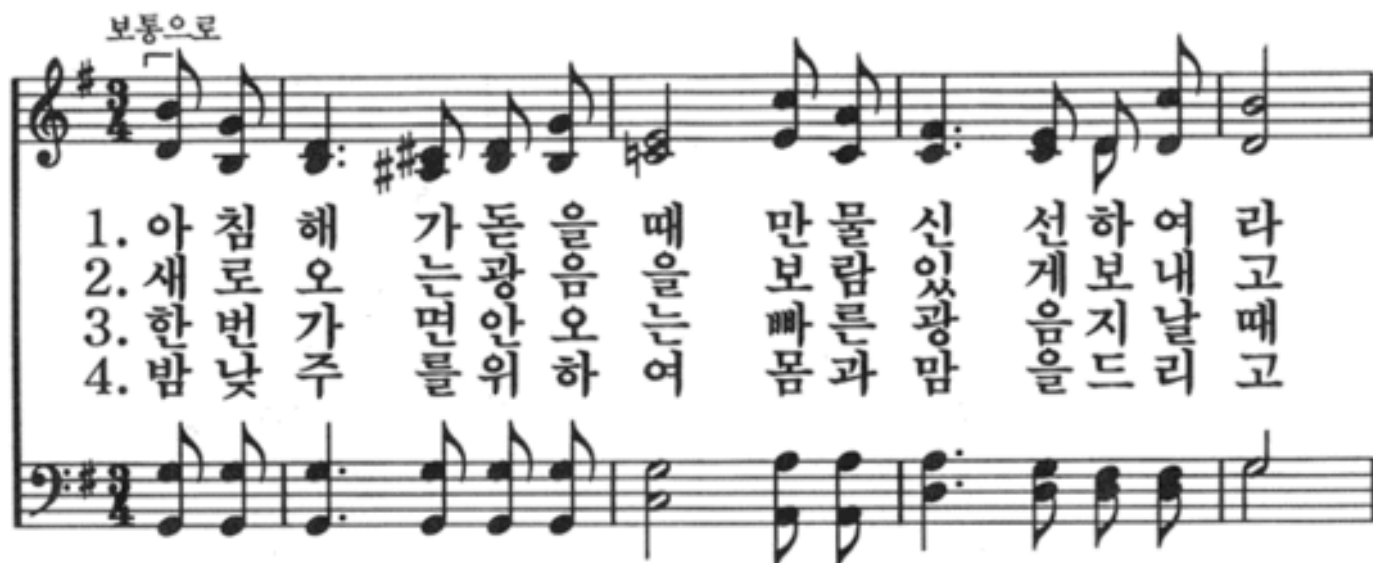
다 같이

552

아침 해가 뜰 때

(통일 358)

보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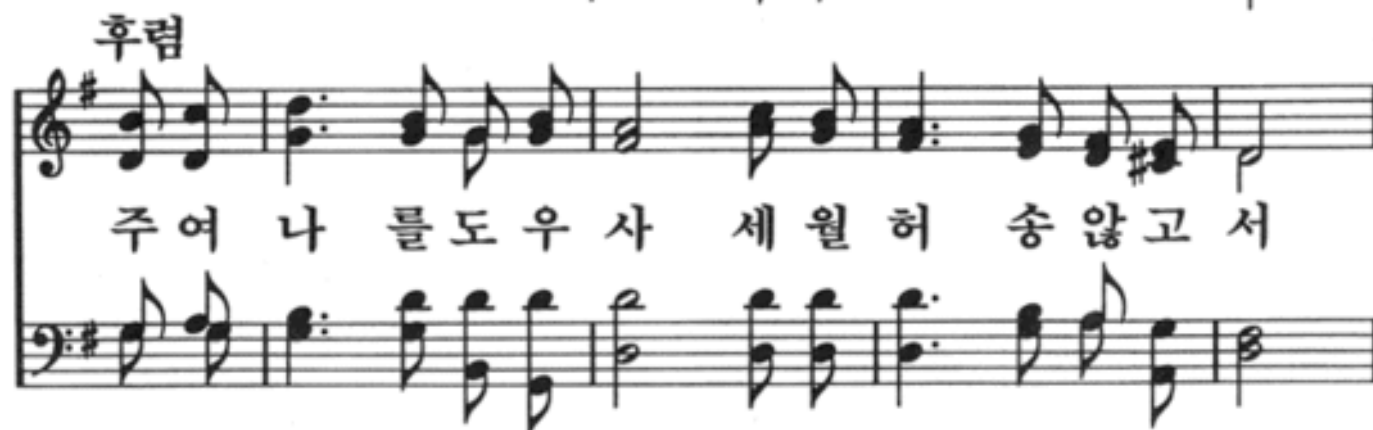


1. 아침 해가 뜰 때 만물 신 선 하 여 라  
 2. 새 로 오 가는 광 음 을 만 보 람 신 게 보 내 고  
 3. 한 번 가 주 면 안 위 하 는 여 몸 과 맘 을 지 날 리  
 4. 밤 낮 주 를 위 하 는 여 몸 과 맘 을 지 날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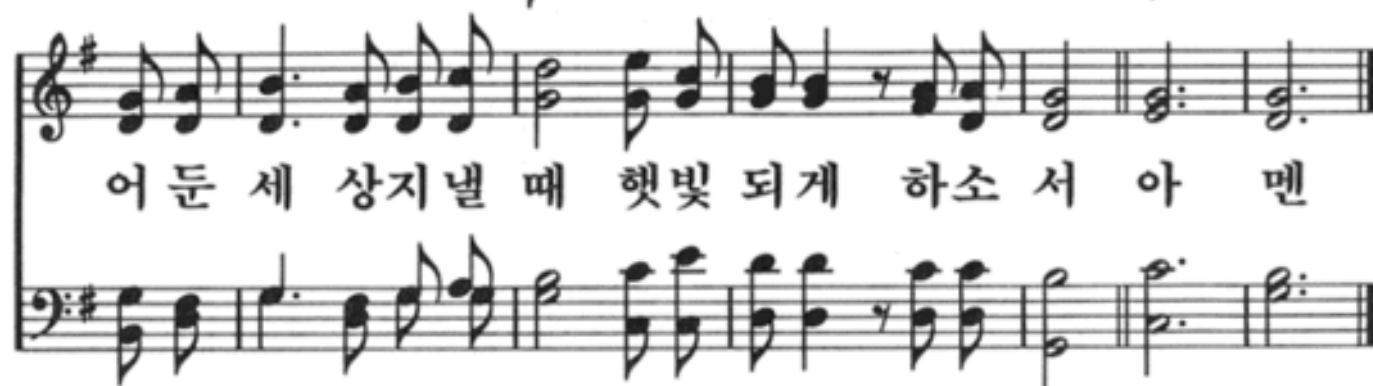


나 도 세 상 지 널 때 해 빛 되 게 하 소 서  
 주 의 일 상 행 할 때 해 빛 되 게 하 소 서  
 귀 한 시 간 바 처 서 해 빛 되 게 하 소 서  
 주 의 사 랑 나 타 내 해 빛 되 게 하 소 서

후렴



주 여 나 를 도 우 사 세 월 허 송 앓 고 서



어 둔 세 상 지 널 때 해 빛 되 게 하 소 서 아 멘

# 공동기도

## 기도하게 하소서

디트리히 본회퍼

---

오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나로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하소서.  
저의 힘만으로 그렇게 할 수 없사옵니다.

내 안에 어둠 있으나, 주님 함께 계시면 빛이 있으며  
저는 홀로 있으나, 주님께서는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며  
제 마음 연약하나, 주님 함께 계시면 도움이 있고  
제게는 쉼이 없으나, 주님 함께 계시면 평안 있사오며  
제 안에 고통 있으나, 주님 함께 계시면 인내할 수 있고  
저는 주님의 길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저의 길 아시오니  
저를 살리시어 자유하게 하소서.  
저로 지금 살아 있게 하셔서  
주님과 제 앞에서 대답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어떤 일 몰아쳐 와도  
주님 이름 찬양 받기를 원하나이다

## 성경봉독

얇은 글씨는 사회자가, 굵은 글씨는 회중이 읽습니다.

### ●                    마태복음 3:13~17                    ●

13. 그 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15.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웁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다 같이)

17.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찬양

다비드 찬양대

#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 317장)



설교

유연희 목사

# 내게 세례를 주소서

# 봉 헌

## 다 같이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정성실 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  
너의 좌편에 그늘 되시니 -  
낮의 해와 밤의 달 - 도 너를 해치 못하리 - 하나  
그가 너를 지키시리 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 다

Copyright (C) 1996 정성실.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일, 보금자리, 사랑, 미지정)

카카오뱅크 7979-72-04893 ㄴㅇㅇ

축도

유연회목사



## 소식

1.

1월 둘째 주일입니다. 23년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2.

오늘 예배 후에는 특별 순서가 없습니다.

함께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곧 새로운 조모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1월 22일은 설날 당일임을 고려해 흠어지는 예배로 진행됩니다. 방문 가능하신 교회는 밴드에 공지 드리겠습니다.

## 소식

4.

다음 주, 1월 15일에는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이 필요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정회원 명단 (총 32명)

뉴노멀, 노버츠, 동윤, 동혁, 동훈, 로마, 미가, 승훈,  
세진, 수수꽃다리, 쌤, 아이작, 여니, 영태, 은영, 이니,  
이름, 이턴, 일욱, 재민, 재윤, 조이, 휴, 진원, 지미, 쫘,  
창희, 티거, 한별, 루카스, 수호, 우

5.

23년부로 헌금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7979-72-04893 ㅂㅇㅇ

6.

약정헌금을 새롭게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신청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PrFPWJ3KruK3Yy497>

파 송

##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일 어 서 서

---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